

운동 삼아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걸으며 느끼는 선선함~
그렇게 가을이 왔다

SBI저축은행 X 최대호_읽어보시집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Autumn 2021 Vol.31

가을에 잔조로운 햇빛 아래

잇었던 사람의 이름

가만히 불러본다.

詩 '가을에' 권석창



CONTENTS

Life+

News+

04 **SBI 체험현장**
펜싱은 알레(시작) 그리고 마르쉬(앞으로 전진)!

18 **세상읽기**
새로운 소비권력 MZ세대

10 **SBI pick's**
90년대~2000년대, SBI 베스트셀러

22 **SBI 포커스 ①**
기업PR 캠페인. 세상의 모든 S-B-I를 찾습니다

12 **유튜브 중계**
유튜브로 누리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24 **SBI 포커스 ②**
은행저축 프로젝트 시즌4. 은행,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26 **SBI 포커스 ③**
'내일은 야구왕', SBI가 SBIcons를 응원합니다

28 **New Face**
사이다뱅크팀 권성훈 외 6명

32 **SBI 희망뉴스**
2021년 3분기 주요소식

34 **열린 편집실**
편집후기 / 다른그림 찾기



희망저축

SBI저축은행 매거진
Autumn 2021 Vol.31

발행일 2021년 10월 8일

발행인 정진문, 임진구

발행처 SBI저축은행 홍보팀

담당 유형근 (02-3416-4210)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기획·디자인 디스토리

웹진 sbiwebzine.co.kr



참여글: 기업금융1팀(A) 박진형 팀장 가족

※ 코로나19 '방역 가이드'를 준수하며, 참가자 외 접촉을 최소화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펜싱은 **알레** (시작) 그리고

마르쉬 (앞으로 전진)!



SBI 기업금융1팀(A)

박진형 팀장

00

02:22

00

큰아들 SBI

박서준



왼쪽부터 박진형 팀장, 큰 아들 박서준(중2), 작은 아들 박서진(초2), 부인 정기숙



올림픽 펜싱 붐 직접 체험하다

'21.09.04 오전 7시 밝은 햇살을 벗 삼아 창문을 열어본다. 오늘따라 맑은 하늘에 하얀 흰구름이 더욱 하얗게 보였다. 오늘은 나와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녀석들과 회사에서 참여 기회를 준 펜싱체험을 하는 날이다.

사실 펜싱은 낯선 스포츠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 큰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보는 스포츠이며, 특히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 내게도 그저 그런 스포츠였는데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펜싱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솔직히 펜싱 붐이라기보다는 두 아들 녀석이 펜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집 안에서 펜싱이 갑자기 큰 인기 종목이 되었다. 올림픽 중 펜싱 경기가 있는 날은 난리도 아니었다. 서로 환호성을 지르며 마치 자신이 선수가 된 것처럼 아들 녀석들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런 관심 덕분인지 아빠가 회사에서 펜싱 체험에 당첨되었다고 하니 모두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아들 녀석들의 기대가 컸던 탓일까? 체험장소로 운전하던 나는 조금 긴장이 되었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단순 체험일까? 펜싱 복장은 입어 볼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목적지 도착.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체험장소에 관계자들을 만났다. 정신없이 인사를 하고 바로 기본기 시작~ “어라 벌써 바로 시작?” 어깨 너머로 긴장감이 들었다. 그런데 강습을 지도해주는 코치님이 정말 친절하고 재미있게 지도해주셨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펜싱답게 모든 구령은 ‘불어’였다.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 처음 해보는 동작이어서인지 가족 모두 자세가 웃겼다. “뿡”, 서로 보면서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런 웃음도 잠시. 펜싱이란 종목이 생각보다 훨씬 체력을 요구하는 종목이었다. 특히 하체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다. 예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이었다. ‘아빠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약간의 쯤쨌하면서 얼굴엔 미소를 띠었지만, 다리는 후들, 등쪽의 땀은 송글송글 맺었다. 그런데 두 아들은 힘들지도 않은지 연신 웃음을 잃지 않았다. 코치님의 구령 하나 하나에 집중하며 기본기를 즐겁게 배우는 아들을 보니 긴장감은 어느새 행복으로 바뀌었다.

경기해 보니 올림픽 다시 생각나

기본기를 마무리했다. ‘아 이제 마치는구나!’ 다리가 풀렸다. 어라 그런데 옆에서 “이제 게임을 해보죠” 잉? 게임이라고? 기본기를 겨우 배웠는데 어떻게 게임을 하지? 코치님께서 펜싱복을 주셨다. 바지까지 입으려면 너무 번거로우서 상체만 입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 무거웠다. 특히 얼굴을 보호하는 마스크 무게는 상당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 중에 수시로 마스크를 벗고 땀을 닦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복장을 갖추고 전자기기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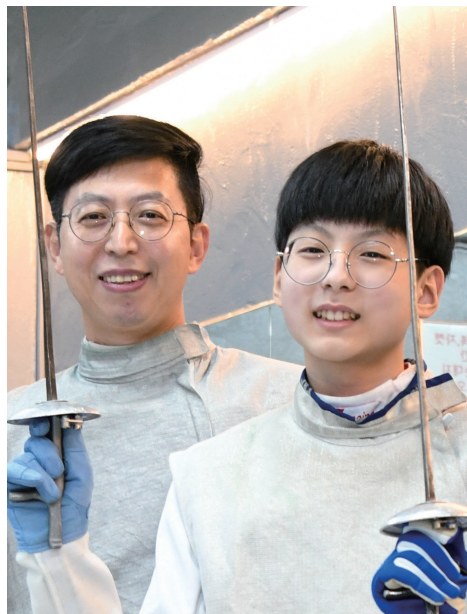


결하니 내 몸에 펜싱 칼이 닿는 순간 뼈~ 붉은 불이 들어왔다. 정말 신기했다. 코치님께서 경험상 단순히 게임을 가르쳐 주신 거겠지만, 복장을 갖추니, 긴장감이 흐른다. 공기의 흐름도 바뀐 듯 색다른 느낌이었다. 첫 번째 게임은 나와 큰아들. 이게 뭐라고 아빠, 아들이 서로 이기겠다고 난투극을 벌였다. 칼자루를 고쳐 들고, 자세를 꼳꼳이 했다. 아빠인 내가 키가 크다 보니 금세 점수를 앞서 갔다. 그런데 갑자기 코치님이 작전타임을 부르더니 아들에게 소곤소곤 귀속말을 하는 게 아닌가. '에이 뭐 저런다고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경기를 재개하는데, 아들 녀석이 이상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게 아닌가? '뭐지?' 생각하며 난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펜싱 칼을 앞으로 짹짹 빼었다. 그런데 뒤로 물러나며 피한 후 "공격!" '이야 이게 펜싱이구나~' 바로 역전, 내가 게임에서 진 걸 떠나서 코치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변하더니, 역시 프로의 원 포인트 레슨은 다르구나 싶었다.

두 번째 게임은 큰아들, 작은 아들~ 두 녀석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참 큰 아들이 중2, 작은 아들이 초 2년이다.) 그냥 난투극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게임 동안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두 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게임을 옆에서 구경하는 나와 아내의 얼굴에는 저절로 미소가 가득 에워싸기 시작했다. 게임이 종료되고 마스크를 벗으니 아들

들 얼굴에는 땀이 듬뿍 맺혀 있었다. "힘들지?"라며 아들들에게 다가가니 두 녀석 하는 말이 "아호 정말 재미있어요!"라며 연신 웃음 꽃을 피웠다.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가족들과 집으로 귀가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다리가 풀려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운전은 힘들었다. 하지만 뒷자리의 아들 둘은 도착하기 전까지 펜싱에 관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저렇게 좋을까?'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아내도 집에 와서는 "여보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 고생했어."라며 어깨를 토닥토닥 해줬다.



FENCING

펜싱 기본 정보

펜싱 3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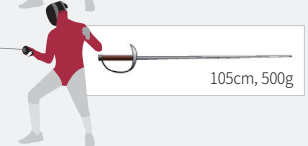
에페(Épée) 마스크와 장갑을 포함해 전신에 타격이 가능하며, 칼 끝으로 공격한다. 찌르기가 주된 공격방식이다. 공격권이 없으며 누구든 찌르면 점수가 나 역동적이다.



플리레(Fleuret) 검은 에페와 마찬가지로 길이를 쓰지만 팔다리를 제외한 몸통만 찌르기 공격이 가능하다. 에페를 위한 연습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사브르(Sabre) 검이 조금 더 작으며 얼굴 팔을 포함한 상반신만 찌르기와 베기 공격이 가능하다. 플리레와 사브르는 공격권이 주어지는 경기방식으로 양 선수가 동시에 공격을 성공해도 공격권을 가진 선수만 점수를 낼 수 있다. 경기는 3분씩 3라운드 총 15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한다.



펜싱용어

- **살뤛(Salut)** 인사
- **앙가르드(En Garde)** 펜싱 기본 준비 자세
- **알레(Allez)** 경기 시작

- **마르쉬(Marche)** 전진
- **롬프레(Rompre)** 후진
- **빠라드(Parade)** 막기, 수비
- **알트(Halte)** 경기 멈춤(정지)

- **팡트(Fente)** 공격의 기본 자세
- **아타끄(Attaque)** 공격
- **투셰(Toucher)** 득점

- **아레(Arrêt)** 단순 역공격(공뜨르 오파시브)
- **봉 뎀 나방(Bond en avant)** 앞으로 점프 이동 동작
- **앙가즈망(Engagement)** 두 칼이 접촉하고 있는 상황

- **농발라블(Non-valable)** 무효
- **꾸 두블(Coup double)** 동시에 찔렸을 경우 플리레와 사브르에서는 우선권을 정하며, 에페는 두 선수 모두 찔린 것으로 간주.



체험장소 이글펜싱클럽

평생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펜싱을 시작해보세요! 펜싱은 움직이는 타겟을 찌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순발력 기초 체력 증진에 탁월한 도움이 되는 전신운동 종목입니다. 원데이 클래스로 펜싱체험, 정규반으로는 다른 동호인 펜서분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 문의 : 010-8465-1575(일로필로) / @eagle.fencing.club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8(석촌고분역 3번출구 도보 1분)



감동? 아니! 난 감성이야 감동에 감성을 더하다

한 번 떠올려 보세요. 하얀 호텔 침구 위에 우드 트레이. 어느 빵 지순레길에서 사온 듯한 특별한 빵과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아메리카노. 창 넘어 좋은 뷰가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찰칵! 이게 바로 인스타 감성 샷이야! 축축한 감성에 더해 책 한 권을 더 한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놓고 싶으신가요?

그게 꼭 종이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 무슨 책을 감성으로 읽어? 책은 감동이지. 그리고 말이야, 뭐니뭐니해도 책은 종이로 인쇄된 것만 책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MZ세대가 아니라는 점. 감동보다는 감성을, 주제보다는 스토리를. 종이책이 아니어도 I don't care. 그렇다면 감성 가득한 요즘 사람들의 책 읽기, 가을을 따라 나만의 '감성도서'를 찾아 떠나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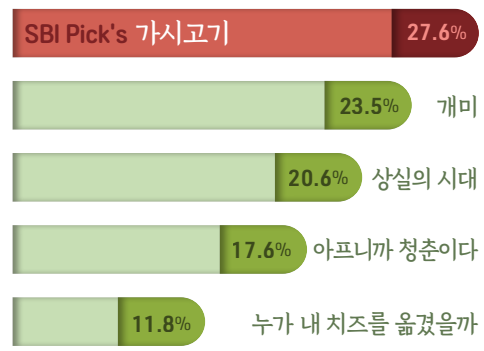
'가을엔 무조건 로맨스지.'라고 외치는 당신께. 내 몸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연애세포를 찾아 웹소설을 찾아 봅니다. 소설 속 남녀주인공과 오디오북에서 들려주는 따뜻하고 강렬한 로맨스 감성에 눈과 귀를 사로잡혀서, 이미 당신의 기억은 조작되고, 잊지도 않았던 실연의 상처에 가슴 아프기 시작하죠.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1시간 20여 분간 흐를 '헤어졌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가 재

생 중이라면 당신은 분명 이 감성에 빠져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해시태그로 찾아볼까요? 음, 몇몇 책을 검색하고, 서점으로 가 봅니다. 더불어 인증샷도 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 말이에요. 서점에 간 김에 책들의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목만으로도 당신의 감성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비밀을 건드리는 책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든지 <1cm의 다이빙>처럼 말이죠. 만약 이 책의 제목이 <죽기 직전 가장 먹고 싶은 음식> 혹은 <1cm의 도전> 이였다면 당신도 지금처럼 작은 마음의 출렁거림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왜 술 한잔이 아니라 떡볶이인지 왜 다이빙에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 표지인지 말이에요.

나의 감성을 건드리는 책들과 함께 해도 늘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이 있죠. 사놓고 채 읽지 못해 숙제처럼 되어버린 책들 말이에요. 그럴 땐 조용히 어플을 켜봐요. 길을 틀려도 절대 지적하지

않는 네비게이션처럼, 읽다 만 책들이 내 서재에 쌓여 있어도 괜찮으니까요. 자, 감성 가득한 요즘 사람들의 책 읽기. 감성을 찾아 떠나도 결국 돌아오는 건 감동이라면, 이제 당신은 처음과 달리 요즘세대의 책 읽기에 준비 동작을 마쳤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건 명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 <달리구트의 꿈 백화점>처럼요. 책으로 보아도 눈으로 읽어도 귀로 들어도 다 괜찮고, 제목만 보고 후했더라도 말입니다.





90년대~2000년대
SBI 베스트셀러

SBI Pick's
가시고기

조창인 | 2000

SBI 한줄평

언제나 사랑받는 이야기가 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도 좋은 책 박은성 | HR지원팀

요즘을 뉴스를 보면... 사람보다 훨씬 나은 물고기 허창인 | 소호영업2팀

부모님의 헌신에는 대가가 없다 나대환 | IB1팀

태어난 해에 발간된 도서이지만 언제 읽어도 슬픈 책 최혜진 | 재무경영팀

이번 가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책 형승희 | 기업금융2팀(B)

※ 베스트 한 줄 평에 선정되신 분들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누리는
슬기로운
집콕생활+

©YouTube Thankyou BUBU

©YouTube 인테리어 하는 나르 NAR tv

여기 메꿀 조각
자르는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족들을 위한 콘텐츠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집을 뜻하는 Home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의 합성어 홈코모니가 등장할 정도로, 이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휴식과 문화, 레저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셈.

홈족들을 위한 땅크부부 채널과 요가와 명상으로 마음까지 편하게 만드는 요가소년, 유용한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는 나르의 인테리어 NAR tv,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가드닝 EZ-Gardening까지, 알찬 집콕 생활을 돕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한다.



©YouTube 요가소년



©YouTube EZ-Gardening



유쾌한 홈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면...

땅크부부 Thankyou BUBU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내 몸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홈트레이닝
운동은 건강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습관이에요!
완벽한 몸보다는 건강한 몸

이미지 : ©YouTube Thankyou BUBU

땅크부부는 운동 관련 유튜브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인기 채널이다. 2016년 유튜브를 시작했다니 벌써 5년 차에 접어든 장수 채널이기도 하다. 30대 평범한 부부가 뼈까뻣한 피트니스 센터가 아닌 자신의 집을 배경으로 운동 효과가 좋은 동작들만 모아 엮었다.

이 채널의 강점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이다. 제목부터 클릭을 유도한다. 칼로리 소모 폭탄 운동,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 똥배 빼기 등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훗날 만한 내용이다. 땅크부부와 함께 운동하다 보면 늘어진 살이 탄탄한 근육으로 바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동기가 중요하다. 매너리즘이 찾아왔다면 땅크부부의 댓글을 읽어 보자. 60일 간 땅크부부를 보며 운동했다는 후기부터,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다양하다. 땅크부부가 남긴 댓글을 읽는 재미도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이드로 손색없는 유튜브다. 채널 이름처럼 '땡큐! 부부'다.



집에서 1만보 걸기 다이어트



칼로리 불태우는 끝판왕 운동



몸과 마음 챙김까지 한 번에

요가소년



요가 소년 (?)

©YouTube 요가소년



땅크부부가 열정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채널이라면 요가소년은 정반대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에 적당한 내용이 많다. 목, 어깨, 허리와 같이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해주는 요가도 있고, 아예 불면증 해소를 위한 수면 유도 이완 영상도 눈길을 끈다. 사실 요가소년은 운동보다는 수련에 가깝다. 깊게 울리는 내레이션의 목소리부터 긴장을 완화시키고, 중간중간 요가소년이 전하는 숨소리는 온전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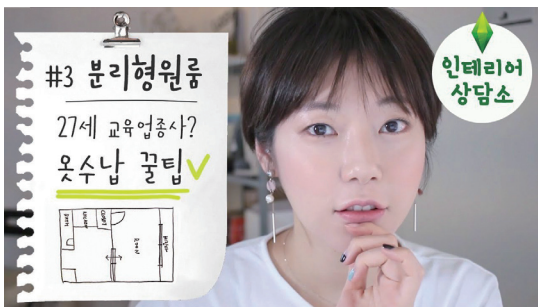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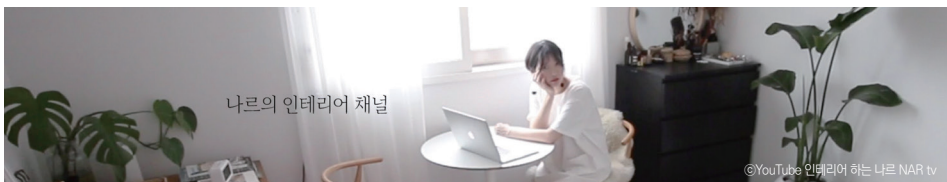
느새 마음도 편안해진다.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요가소년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6시, 함께 요가를 한 뒤 담소를 나누는 유료 회원이 부담스럽다면, 스트리밍 서비스 업로드 24시간 내에는 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참조하자.

요가소년이 다른 홈트 채널과 차별화된 점은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챙긴다는 점이다. '애쓰지 않아도 우리 몸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요가소년의 말은 동작을 완벽하게 따라 하고픈 욕심을 덜게 만든다. 자신의 몸상태에 맞춰 동작을 하다 보면 어





개알 같은 셀프 인테리어 팁을 제공하는 고수 인테리어 하는 나르 NAR tv



일하다. 특히 [심즈로 하는 인테리어 컨설팅]은 참신하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심즈를 가구 배치하는 톨로 활용했다.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알고 보면 정보력과 실행력, 그리고 '노가다'가 필수다. 나르 TV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과정을 대신해준다. 크리에이터가 홀로 시공하며 땀 흘리는 모습은, 저 사람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작은 위안을 선사한다. 나르 TV를 구독하다 보면, 큰 실수 없이 혼자 힘으로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방법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나르 TV는 인테리어 비전공자가 운영하는 셀프 인테리어 채널이다. 최근 집을 꾸밀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한다. 특히 예산이 고민이라면 셀프 인테리어가 답이다.

나르 TV는 철저하게 일반인의 시각에 맞춘다. 전문 용어가 난무하지도 않고 방문이나 창문틀 페인트칠하는 방법부터 5만원으로 드레스룸 만들기, 바닥 시트지 붙이기 등 내용도 디테



우리집에 초록이 피었어요~ EZ-Gardening



집에서 쉽게 하는 식물가꾸기
EASY GARDENING AT HOME



©YouTube EZ-Gardening



EZ-Gardening은 다육식물을 천연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시키는 과정을 담고 있다. 미니 화분이나 바구니, 행잉 플랜트, 센터피스 등 집안을 꾸미기에 손색이 없는 소품들이다.

이 채널의 매력은 단순함이다. 별도의 내레이션 없이 오로지 미니 화분을 만드는 과정에만 집중한다. 영상 전체에 깔리는 경쾌한 BGM이 작업 과정을 거들뿐이다.

EZ-Gardening이 즐겨 사용하는 재료도 눈에 띈다. 먹고 남은 투명 플라스틱 병이나 테이크 아웃 컵, 유

리병이나 작은 플라스틱 그릇 등을 재활용한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버리는 플라스틱 컵이 미니 화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놀랍다. 만드는 과정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일부 매듭을 만들거나 코바늘 뜨는 과정이 번거롭다면 그냥 끈으로 연결해도 작품을 만드는 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인다. 완벽하진 않아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든 미니 화분을 만날 수 있다.

EZ-Gardening에 등장하는 식물은 집에서 키우기 쉬운 선인장, 알로에, 돌나물과 등 다육식물이 주를 이룬다. 화려하게 피는 꽃은 아니지만 집안에 초록을 선물하는 생기 넘치는 채널이다.

새로운 소비권력



글 ·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요사이 한국 사회에서 MZ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밀레니얼 세대와 그 후속 세대인 Z세대 한국인들은 현재 한국의 모든 직장과 조직에서도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주식시장, 코인시장, 중고 거래시장, 명품시장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화되면서 이커머스를 포함한 한국 소비시장에서 MZ세대는 이제 한국의 새로운 소비권력이 되었다.

최고의 성장환경 그러나 불안정한 미래

MZ 세대는 1980년부터 1994년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출생한 Z세대 즉 현재 13세 ~ 42세에 해당하는 1,900만 명의 한국인을 일컫는 말이다. MZ세대는 한국 역사상 최고의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미래가 불안정한 '불안한 세대' 라는 세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MZ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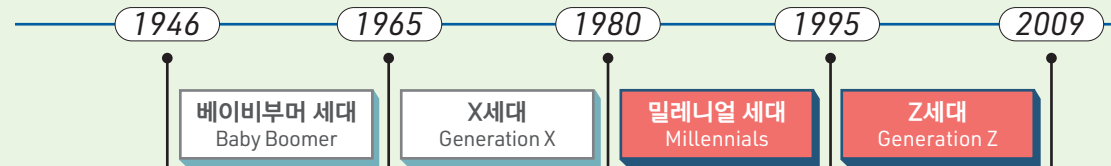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 (1980년 ~ 1994년 출생)

밀레니얼 세대는 1997년 IMF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이라는 부정적, 긍정적 사건을 잇따라 경험했다. 세기말을 지나서 2000년이라는 새로운 천년을 접은 시절 맞이했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로 불린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개인적이며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한 세대로 불리고 있다. 비정규직화된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Z 세대 (1995년 ~ 2009년 출생)

Z세대는 사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세월호 참사 등을 경험한 글로벌 한국인이다. 이들 세대는 소득 2만불 이상의 경제 선진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과 '공정성'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구 수는 837만 명이다. 이전 세대 대비 현격히 차별화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로 인하여 향후 한국의 소비시장과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MZ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미래 불안정과 가처분 소득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소비 행태는 기본적으로 '가성비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적 만족감을 최우선 하는 '가심비 소비' 또한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가심비'는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가성비 좋은 알뜰폰을 구매하면서 500만원 대 명품도 주저없이 구매하는 투 트랙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들이다.



나에게 집중, ESG와 명품소비 성향

첫째,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나'를 보여주기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기 문화에 친숙하다.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드러내는 '미닝 아웃' (meaning out) 소비를 통하여 환경과 공정 그리고 인권, 동물권, 윤리 등 이슈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기업의 상품과 브랜드 소비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한다. 환경 보호를 위하여 무라벨 생수와 종이 빨대를 선호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가방과 에코퍼 자켓 등을 구매하고 있다. '인스타그램머블' 한 장소를 방문하거나 명품 제품을 구매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플렉스(Flex) 욕망 또한 전 세대를 통해서 가장 강한 편이다. 정리하면 MZ 세대 소비자는 ESG(친환경, 사회정의, 투명성) 소비와 명품 소비 지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평범해도 좋아! 나의 힐링이 더 중요

둘째,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하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사는데 더 큰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조직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워라벨'(일-삶 균형)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 그러므로 명확한 업무지시와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을 선호한다. 조직에 충성을 강요하거나 ESG 표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감히 사표를 내고 나오기도 한다.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무드 다이어리, 명상, 오디오 콘텐츠 등을 구매한다. 무자극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 저성장과 TMI(지나친 정보 홍수)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한 세대 MZ 소비자들이 노-브랜드 제품과 명상 관련 상품과 힐링 서비스에 열광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투자형 소비 라이프



셋째, MZ 세대는 향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주식과 코인, 미술품등 수익률이 높은 모든 상품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전도사 존리 대표를 팔로잉하고 장기 주식 투자를 통하여 '돈이 자신을 위하여 24시간 일하는 라이프'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비에서도 소위 '투자형 소비'에 적극적이다.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입해 웃돈을 통해서 재판매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MZ 세대 10명중 8명 이상이 '중고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한다. 명품 리셀을 통하여 100% 이상의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들이 리셀(Resell) 수익률이 확실한 3대 명품 '에루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에 특히 열광하는 이유도 이 같은 투자형 소비로 설명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MZ세대

MZ 세대는 자본주의 키즈로 자본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극강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글로벌 대안을 제시하는 금융서비스에 끌린다. 이들은 20대부터 주식과 코인투자를 시작하고 앱 경제의 주역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다.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해외 친구들과 수시로 이야기하는 글로벌성도 가지고 있다. 미국 주식투자를 손쉽게 접근하는 MZ세대. 국경을 넘어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를 한다.

동시에 이들은 시간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시간부족 (time poverty) 이란 유튜브, 왓챠, 넷플릭스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로 하루 최소 3시간 정도를 소비하는 이들 세대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하여 항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말한다. 모바일로 모든 서비스(배달, 교육, 콘텐츠 등)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MZ세대는 직관적인 서비스에 열광한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교수는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로서 15여 권의 책과 8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연구와 후진 양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2000년 ~ 현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_『빅블러 시대』, 『브랜드 마케팅』, 『불황에 더 잘나가는 불사조기업』 등

기업 PR 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

**SNS셀럽과 함께 하는
일상 속의 S·B·I**

소비자와 소통하는 SBI저축은행의 기업PR 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 사람, 동물, 음식 이름부터 방언, 의성어, 의태어 등 '생활 속 모든 SBI'의 제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기 유튜버까지 참여한 가운데 또다른 재미를 선보이고 있다.



세쌍이(SBI) 집사 '김코코'

팔로워 25만에 달하는 틱톡스타 김코코와 함께 그녀의 반려묘 세쌍이(Se Bbang-i)와 톡톡 튀는 인터뷰 영상을 촬영했다. 틱톡 인플루언서 김코코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그녀의 반려묘 세쌍이와의 일상을 공유하였는데 인터뷰는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MC섭이가 키스장인 세쌍이와 집사인 김코코를 인터뷰를 시작하려는데, 이게 웬 일! 시크하고 쿨내 진동하는 세쌍이 무심함에 동공 지진, 당황하였지만 이내 김코코의 재치에 즐거운 인터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세쌍이는 평생 함께 할 친구이며, 단짝인데 세쌍이와 집사 김코코처럼 SBI저축은행도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유튜버 설기양, 소박이(SBI) 먹방

유튜버 설기양(SULGI) 님이 SBI와 함께하는 먹방 영상을 촬영하여 개시했다. 설기양은 많은 사람들의 시각과 청각을 사로잡으며 먹방 유튜버로 1억 뷰를 달성하였다. 설기양은 음식에 관한 짧은 스토리도 함께 올려 일상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으로도 유명인데, 일상 요리인 짜파게티에 오이, 고추, 가지로 만든 소박이(SBI)를 담가 함께 먹는 영상을 공유하였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외식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안에서 항상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때에, 소박이(SBI)와 같이 아삭함을 더해주는 음식이 잠시나마 시원함과 개운함을 더해줬다.



설기양과 김코코의 유튜브에서는 SBI 저축은행의 캠페인과 그 취지를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특별한 멘션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일상을 공유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그러나 특별한 아웃 'SBI에 도전하기' SBI 캠페인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특별함으로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PR 캠페인 형식에 도전할 예정이다. SBI가 SBI를 찾습니다.



은행저축 프로젝트 Season 4

'반려 은행' 입양 프로젝트

은행,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은행나무.
 하지만 은행 열매 악취 민원으로 많은 은행 나무들이 베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위기의 은행나무를 구하기 위해 SBI저축은행이 '반려 은행' 입양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반려나무 무료 분양! 잘려나갈 위기의 나무, 당신이 키워주실래요?

사연 접수

선정

이식 공사

SBI저축은행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반려 은행 입양 신청 접수

접수된 사연 중 우수 사연들을
선정하여 입양결정 및 일정 조율

이식공사 완료후 입양결과 및
사연을 SNS와 다음호 사보를 통해 소개



은행(銀行)이 은행(銀杏)을 살린다

가을이면 열매 맺는 나무는 귀한 대접을 받지만, 도심의 미관을 도맡고 있는 은행나무는 오히려 반대 꼴이다. 매연에 맞서 공기정화 역할의 인간 친화적인 나무지만, 은행 열매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다. 민원이 쌓이면, 은행나무는 베어질 뿐이었다. 오랜 기간 그 자리를 지켰으나 사라질 위기의 '은행을 은행(銀行)이 살린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은행저축프로젝트>. 올해로 시즌4를 맞이한다. 생명 존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SBI저축은행의 기업정신이 담기어 장기 CSR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첫 시행 연도인 2018년에는 설치 미술을 통해 잘려나갈 은행나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알리는 데 집중하였으며, 2019년에는 은행나무를 살리기 위해 새 보금자리로 옮기는 이식공사를 지원하였다. 3년 차인 2020년에는 캠페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름 뜻말 걸기 SNS 프로모션을 추가했다. 이때부터 은행저축프로젝트는 '관계 맺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

'반려은행' 다시 사랑받을 곳으로

2021년 <은행저축프로젝트> 시즌4는 미움받던 은행을 '다시' 사랑받게 만든다. 은행나무에 '반려

식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반려은행 입양 프로젝트는 단지 은행나무를 옮겨 심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나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디'와 '누군가'를 찾아 주는 캠페인이다. 먼저 은행나무를 원하는 개인, 단체, 장소 등의 사연을 받는다. 접수된 사연에 따라 적합한 암은행나무를 사연 주인공의 가까이에 심어 준다. 은행나무를 입양해 잘려갈 나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신청자들의 애뜻한 소원을 동시에 이뤄줄 수 있는 '반려은행 입양 프로젝트'. "저도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도심에서 은퇴한 은행나무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동네 앞 정거장에 우리 마을 사람들을 기다리는 한 그루 지킴목을 늘 바랬습니다." 은행나무를 진짜 더 많이 사랑해 줄 이들을 찾아 '반려은행'을 선물할 것이다.

<은행저축프로젝트>는 4년을 넘게 꾸준히 진행하여, 더 특별한 SBI만의 사회공헌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 차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은행저축프로젝트> '시즌4'는 입양된 은행나무의 후일담을 SNS와 다음 호 사보에 소개할 예정이다. 반려은행으로 다시 새 삶을 찾은 행복한 은행나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SBI저축은행이 고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듯이 누군가의 '반려은행'으로 노란 잎을 드리울 은행나무를 그려 본다.



SBI가 SBIcons를 응원합니다

에스비아이콘즈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야구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출신 김병현이 나섰다. 채널A TV프로그램<내일은 야구왕>을 통해 야구 꿈나무를 선발하고 한팀을 이루는데 이름하여 'SBIcons'. Super Baseball Icons의 약자로 차세대 야구 아이콘을 찾겠다는 뜻이다. 지난 4월 선수모집부터 10월 마지막 방송까지 6개월간 SBI저축은행이 유소년 야구단 SBIcons의 밝은 미래를 후원했다.



캐스터
김일중

감독
김병현

해설
이위재

차세대 야구 아이콘을 찾아서

SBI저축은행이 어린이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야구왕'의 유소년 야구단을 후원했다. '내일은 야구왕'은 야구선수를 희망하는 어린이를 공개 모집해 야구단을 꾸려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이 직접 코치로 나서 어린이 야구단을 트레이닝 시키는 포맷이다. 이 야구단의 이름은 SBI저축은행을 뜻하는 SBIcons(에스비아이콘즈). Super baseball Icons의 약자로 차세대 야구 아이콘을 찾겠다는 뜻이다.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김병현 선수가 감독을 맡고 KBO 출신의 최준석, 유정학 코치가 기초 훈련 및 트레이닝을 전담했다. 또한 연예계 대표 야구 '덕후' 이휘재는 해설로 아나운서 김일중은 캐스터로 나서 'SBIcons' 결성과 경기 중계로 야구 꿈나무들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다.

스포츠 꿈나무를 응원합니다

지난 4월 초등학교 4~6학년들을 대상으로 '내일은 야구왕' 어린이 선수 모집공고가 있었다. 엄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16명의 선수를 뽑아 야구단을 출범했다. 당초 '제1회 황금사자기 어린이 야구대회'를 개최해 SBIcons뿐만 아니라 전국 유소년 야구단과의 경기를 통해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국대회 대신 각 지역별 강자와의 대결 경기를 펼쳤다. 숨막히는 경기와 인기 야구스타 박용택 등의 원포인트 코칭은 매주 채널A '내일은 야구왕'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내는 방송 장면은 유소년 야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SBI저축은행은 '어린 야구 유망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응원했다. 앞으로도 스포츠 꿈나무들을 향한 SBI저축은행의 응원은 계속될 것이다.

이미지 : ©채널A '내일은 야구왕'



SBI의 새얼굴을 소개합니다

동료는 우리의 부족함을 가득 채워주는 '에너지'입니다. 든든히 내 옆 자리를 지켜줄 New SBI人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의 '장점'을 더 칭찬하며, 새로운 각오를 응원하는 말 한 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 Q1. 당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마디는?
- Q2.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 Q3.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평가하는 당신의 장점은?
- Q4. SBI저축은행에 입사 후 새 직장에서 각오가 있다면?

이동기 IT운영팀

- Q1 무뚝뚝한 부산남자라 표현이 다소 부족합니다. 하지만 구수한 사투리가 일품이고 속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 Q2 수산물을 좋아해 한 달에 3~4번 정도 새벽 노랑진 수산시장에 방문합니다. 직접 활어를 사다 회랑 수산물 요리를 해서 주말에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취미입니다.
- Q3 때론 유머러스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노력하는 사람
- Q4 첫 금융권 프로젝트가 SBI저축은행 차세대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온 마음이며 함께해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최순지 인프라운영팀

- Q1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 Q2 여름엔 캠핑, 겨울엔 보드 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 Q3 동료들이 평가했던 제 장점은 책임감과 깔끔함입니다.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하며, 그 일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 Q4 1등 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1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수 기업금융2팀(B)

- Q1 Smile, 긍정은 나의 힘!
- Q2 멋진 풍경을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 영화감상
- Q3 밝고 꼼꼼하고 팀에 활기를 주는 사람
- Q4 선배님들의 노하우를 열심히 배워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박민서
사이다뱅크팀

- Q1 열정 넘치는 에너지이저
- Q2 지금은 등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을엔 역시 산을 타야 제맛이죠!
- Q3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헤쳐 나가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 Q4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적응해서 꼭 필요한 팀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권성훈
사이다뱅크팀

- Q1 ESFJ, 사교적인 외교관
- Q2 야구, 사회인 야구에서
중견수로 활동 중입니다.
- Q3 친화력이 좋은 사람
- Q4 무한경쟁 데이터산업 시대의
중심이 되는 SBI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정민
채널3팀

- Q1 시간이 지나도 변치않는 사람
- Q2 여행,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 Q3 이 구역의 분위기 메이커
- Q4 SBI와 함께 성장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지완
전략기획팀

- Q1 가식없이 솔직한 사람
- Q2 육아, 육아, 육아.
'이젠 취미란 나에게 무엇이던가'
- Q3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사람
- Q4 새로운 조직, 사람,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BI골프단 이소미 선수 MBN여자오픈 우승 시즌2승(통산3승) 달성



최종 라운드에 짜릿한 역전승으로 우승

SBI골프단 이소미 선수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MBN여자오픈에서 우승해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이소미 선수는 지난 8월 열린 대회에서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2020년 10월 생애 첫 우승을 거뒀던 이소미 선수는 9개월 만에 통산 3승을 일구며 KLPGA 투어의 간판급 선수로 자리 잡았으며, 상금랭킹도 4위로 끌어올렸다. 이소미 선수는 지난 4월 시즌 개막전 여자오픈에 이어 16개 대회 만에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따냈으며, 선두와 3타차 공동 7위에서 최종 라운드 우승으로 마감해 짜릿한 역전승의 기쁨을 안았다.

SBI골프단이 출범했던 2018년 영입된 이소미 선수의 연이은 우승을 통해 SBI저축은행은 간접광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소미, 김아림 선수의 우승 등 SBI저축은행의 국내 골프 유망주 발굴효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을 지원해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SBI골프단은 김아림 이소미 박수빈 신보민 김다은 등 5명의 선수로 구성돼 국내외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기업PR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 '2021 에피어워드 코리아' 파이널리스트 수상

SBI저축은행이 소통형 기업PR캠페인 <SBI가 SBI를 찾습니다>로 '2021 에피어워드 코리아'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에피어워드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시상식이다. <SBI가 SBI를 찾습니다>는 기업명 SBI를 활용해, 기업이 광고를 만들어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 대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소재를 제공하고, 광고에 출연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캠페인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SBI가 SBI를 찾습니다>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만들어 나가는 소통형 캠페인이라는 점, 취지와 창의성, 이를 바탕으로 대중의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SBI저축은행 사회공헌 프로그램 '2021년 소외아동지원' 확대

SBI저축은행은 학대피해아동 돕기를 위한 '소외아동지원'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SBI(아이) 희망저축 캠페인' 두 번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학대가정의 아동돕기 프로그램. 이를 통해 총 155명, 71개 가족 등이 심리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받았다. 또한 '아이를 웃게 하는 행복 레시피'라는 아동학대 예방 영상을 제작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진행하였다. SBI저축은행은 2021년에도 굿네이버스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 전문지원과 가정지원사업을 연장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외아동지원'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사내 게시판에서 다음 호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과 <SBI pick's> 설문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BI 체험현장> 참가 신청

가족, 동료, 연인,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하는 액티비티에 도전해 보세요. 멋진 사진으로 추억을 남겨드리고 참여하신 분께 백화점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SBI pick's> 설문 참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SBI저축은행 매거진 <희망저축>은 임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두 귀를 쫓긋 세웁니다. 홍보팀 유형근(koomtle@sbisb.co.kr)에게 의견을 보내주세요.

편집후기

포기하는 패기

MZ세대, 그 중에서 특히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남'보다 '나'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Z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미국의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였습니다. 체조 신동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 4관왕을 차지하며 체조 여왕으로 불리었으나, 이번 도쿄올림픽 대회 도중에 그녀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기권하여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대중들은 '4년을 준비한 올림픽에서, 국가를 대표한 자리에서, 최고의 선수라는 위치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Z세대는 나약하고 패기가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일스로 대표되는 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강인하고 패기가 넘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패기'라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버텨내서 성과를 이루어내는 행위만이 '패기'는 아니니까요. 어쩔 수 없는 것들,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 불가능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더 큰 '패기'가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자신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포기한 바일스의 패기는 박수 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에 부치는 일이나 이미 실패에 가까워진 일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꽁꽁 앓다가 심신이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더 너털너털해지기 전에 우리에게도 쿨하게 한수 접을 줄 아는 패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요. 물론 상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납득할만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팀장님, 이 일은 제 '안녕'을 위해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선불리 말했다가 영원히 '안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구요.

오늘도 패기 넘치는 하루를 꿈꾸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홍보팀 유형근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에서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1. 서로 다른 곳을 찾아 사진에 표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세요.
2. 12월 24일(금)까지 홍보팀 유형근(koomtle@sbisb.co.kr)에게 답을 보내 주세요.
3. 정답을 보내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다섯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호 다른 그림찾기 정답

